

사순절 새벽 설교

설교 | 조광성



송현이결교회
Songhyeon Holiness Church

사순절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책을 집필하며...)

사순절의 의미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를 말합니다.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어로 40을 의미하는 <테사라코스티>의 번역입니다. 이미 거행되었던 절기로 재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며 40일 기간 동안 지킵니다. 부활절은 유월절 계산법을 따르는데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면 그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인데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2023년 재의 수요일은 2월22일 이고 4월8일에 종료가 됩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성토요일에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는 여섯 주일은 사순절의 엄숙함이 완화되고 부활의 기대를 품은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Lent)은 길이(length)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슨어 <lencen>에서 유래한 말로 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사십 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 신자의 세례를 위해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순절은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회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합니다. 재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흙은 재로 해석됩니다. 재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재를 이마에 바른다고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한 재는 지난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잎을 태워 재를 만들고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상징으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바로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 라는 것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 바로 전 주간의 수요일을 말하는데, 이날 재를 태워서 머리에 얹는 예식이 행해진 것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성 주간은 3세기의 사도 헌장 속에도 언급되어 있다. 부활 전 절기(Pre-Easter

season)는 나중에 30일간으로 연장되었는데, 니케아회의 때, 온전히 4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유럽 여행 도중 사순절 뿐만 아니라, 성 주간이 온전히 경건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고 이집트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금식을 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6세기에 분비의 시작으로 성회 수요일을 창시하였습니다. ‘속죄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한데서부터 유래하였다.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참회의 수요일에 모여 죄를 용서받는 표로써 이마에 재를 찍어 바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월요일에 시작되어 참회의 수요일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와 교훈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와 의미를 살펴볼 때, 재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가 머리를 뜯으며 자기가 입은 옷을 찢는 것 등과 함께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모르드개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무릎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으며(에스더4:1),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욥 또한 재 가운데 앉아 그가 당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욥2:8). 그리고 요나의 회개라는 선포를 들은 니느웨 왕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였습니다(욥3:6). 따라서 재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슬픔이나 겸손이나 통회 그리고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참회의 예식은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의 먼지와 같이 무익한 재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재나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깊이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심정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는 물건을 태운 찌꺼기로써 죽음이나 파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억하여 열심히 통회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날 목회자에게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라는 죽음의 선포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에 쓰이는 재는 전년도의 종려 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 년 동안 종려나무를 보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로 말미암는 넘치

는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참회의 수요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그 재를 머리에 쓰는 행위는 승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⁸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설교 묵상집과 죽음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재는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도 하는데, 구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죄인을 정결케 하기도 하였습니다(히9:13). 우리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의 축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와 정결예식 마지막으로 재를 바르는 의식이 ‘정결예법’의 하나였으므로 성경에 나타난 정결의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정결은 신체적인 정결과 의식적 정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나(창6:9),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흠이나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취하여”라고 하여 정결하다는 의미로 히브리어 ‘타호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정한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속성일 것입니다. 또한, 속된 것은 신체적 오염을, 부정한 것은 의식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이룬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율법에 나온 정, 불결의 규정 참고).

이스라엘은 거룩하며(레11:44-45),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의식적인 부정은 죄였습니다. 신체적인 정결이 그들의 사회에서 요구되었다. 무엇보다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출19:10, 30:18-21, 수3:5 참고). 정결이란 용어는 짐승(창7:2), 장소(레4:12), 물건(사66:20), 또는 의식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삼상 20:26, 겔36:25)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정화의 통상적인 방법은 목욕하는 것과 옷을 씻는 것입니다(레15:8, 10-11). 그러나 출혈(레15:19), 출산(레12:2,8, 눅2:24), 문둥병(레14장), 시체와 접촉(민19장, 나실

인의 경우 민6:9-12) 등으로 정회되는 데 특별한 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정화는 신체일 수도 있고(렘4:11, 마8:3), 속죄 제물에 의해 죄를 속하기도 합니다. 의식상의 정화는 물, 불 또는 붉은 암소의 재에 의해서(민19장)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51:7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노래한다. 이는 윤리적 또는 영적 정화의 비유로서 좋은 실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에서 의식적이기보다 도덕적 정결을 강조하였습니다(막7:1-23).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결을 뒤로 하고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강조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은 정결하게 하는 문제가 이미 변론의 주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유월절 명절을 위한 정화의 경우는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요11:55, 18:28).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정결의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외의 의식적 불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식적 정결에 매달려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막7:15-16). 진정한 정결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히9:1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전통과 예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력 전통에 따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40일간의 경건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의 부정을 물리치고, 경건한 삶의 자세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로의 여정, 부활의 기쁨으로의 여정을 떠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 차

사순절

1일차	2/22 수	참회의 수요일 거룩한 신앙의 자세	7
2일차	2/23 목	기도, 버킷 리스트	11
3일차	2/24 금	거룩한 삶을 위한 중보기도	14
4일차	2/25 토	부활에 대한 예고편	18

사순절 첫 번째 주일

5일차	2/27 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21
6일차	2/28 화	갈급한 심령을 담은 소합향의 기도가 되려면?	25
7일차	3/1 수	상한 심령을 담은 나감향의 기도가 되려면?	29
8일차	3/2 목	진액을 짜내는 물입을 담은 풍자향의 기도가 되려면?	33
9일차	3/3 금	말씀의 모형인 유향의 기도가 되려면?	36
10일차	3/4 토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소금 기도가 되려면?	40

사순절 두 번째 주일

11일차	3/6 월	많은 무리 중에 특별한 우리	44
12일차	3/7 화	하나님의 가족	48
13일차	3/8 수	농부의 마음	53
14일차	3/9 목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58
15일차	3/10 금	삶의 풍랑 속에서	61
16일차	3/11 토	비천함에서 온전함으로	66

사순절 세 번째 주일

17일차	3/13 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71
18일차	3/14 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76
19일차	3/15 수	세례 요한의 죽음	82
20일차	3/16 목	기적의 통로	87
21일차	3/17 금	의심과 두려움	93
22일차	3/18 토	전통과 신앙	101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3일차	3/20 월	믿음 VS 불신	108
24일차	3/21 화	무지를 넘어선 신앙	112
25일차	3/22 수	신앙 핵심파일	115
26일차	3/23 목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119
27일차	3/24 금	보이는 것 VS 보여지는 것	122
28일차	3/25 토	믿음의 위기	126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29일차	3/27 월	역주행	130
30일차	3/28 화	관문을 통과하는 삶	133
31일차	3/29 수	남용되는 규범	136
32일차	3/30 목	경건의 능력	140
33일차	3/31 금	주님이 오신 목적	144
34일차	4/1 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148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35일차	4/3 월	다 쏟아 주셨습니다.	152
36일차	4/4 화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157
37일차	4/5 수	주님이 옳습니다.	161
38일차	4/6 목	성목요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십니까?	166
39일차	4/7 금	성금요일 우리 가족입니까?	170
40일차	4/8 토	성토요일 부활이 사실입니까?	174

사순절 1일차 2월 22일 수요일(참회의 수요일)

<거룩한 신앙의 자세>

마태복음 6:1-6, 16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인랑입실(引狼入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뜻은 늑대를 제집에 끌어들이다, 적이나 도적을 집안에 불러들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위선에 속아서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제거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한 마디로 종교생활이나 구제의 실천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과 외식적인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처럼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구제가 곧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로 동일시하는 것임을 볼 때, 구제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구제가 매우 중요한 실천이기는 하지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연기하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유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시장은 배우들로 가득차 있다’라는 말에서도 이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선행을 보이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찬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식과 위선적인 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행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외식하지 않는 신앙의 덕목

이어서 오늘 말씀은 외식하지 않는 신앙의 덕목으로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서 살펴봤던 ‘구제’는 이웃에 대한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행위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 번씩(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자세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서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에 위선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시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권면도 놓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 또한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금식은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선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간주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는데, 회개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금식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고 있

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여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동일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점

만약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을 보여주면, 그 전쟁은 보나 마나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경건한 실천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교제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금식, 하지만 이러한 경건의 실천을 위선으로 가득 채운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은 십중팔구 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문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경건한 실천이 오히려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기도, 버킷 리스트>

요한복음 17:1-5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언제가부터 ‘버킷 리스트’(Bucket List)라는 말이 유행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 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버킷 리스트’(부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2007년에 제작말씀 되고, 한국에는 2008년 4월 개봉하면서였습니다. 이 영화는 암에 걸린 두 주인공이 병실에서 만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버킷 리스트를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마무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기록하기에 앞서 내용이 전환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1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십자가가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한 것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빌2:9).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살리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영생’이고,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 감화로서 체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은 단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내용도 없고 실천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심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과 동

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룩한 사역이라면,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꿈과 목표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의미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은 이익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메뚜기 떼처럼 작은 곤충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행복하다고 안위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버킷 기도문을 적어본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문

우리의 구원자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이 곧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거룩한 삶을 위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6-19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의 찬송 15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본문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마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

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야만하는 안타까운 심정과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는 말씀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만 잤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두려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이후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을 대신해 말씀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했던 제자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세웠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 주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진리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설교 묵상집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일치와 불화가 염려되었고, 이러한 불일치와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의 모델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 예수님의 뜻이 하나이고, 이루고자 한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 또한, 그들의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뜻과 목적을 위해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능력있게 제자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악한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쉽게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악한 관습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악한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합니다. 서로 배제하고 차별하며 서로에게 위협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불일치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하나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걱정과 기도에 정면 반대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 하나되어 협력하여 끝까지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

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부활에 대한 예고편>

요한복음 20:20-26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오늘의 찬송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내용이면서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곧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것이요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고 회의주의로 여기지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죽음이 바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새로움의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씀이 19절 중반절에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았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그 연약함을 극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굳게 닫았던 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불안을 위해서 닫았던 그 문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증명해 주셨

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 하신 후,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임을 당한 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사도’라는 단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이 가까워진 그 시점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시키고 사명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하신 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강림 후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일련의 과정속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의 지난 후, 제자들은 도마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적용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좀 더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실존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부활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상황과 환경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굳게 닫았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는 무

엇입니까? 자존심, 절망, 대인관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진로문제 등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문을 굳게 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소가 바로 부활을 경험해야 할 요소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문

주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부활의 그 주님을 날마다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5일차 2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 상달 되는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요한계시록 8:3-4, 5:8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34-38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코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3-4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8

오늘의 찬송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들은 사순절에 무엇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아닐까요? 그 새벽기도에 무엇을 주로 다루게 될까요? 아마 교회력에 의한 사순절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새벽 기도에서 다루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력에 맞추어 예수님의 생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다루리라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순절 새벽기도와 성도들의 새벽기도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력에 따라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하지만,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완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순절 새벽 기도가 끝나면 새벽기도 인원이 썰물처럼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행사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사순절 40일이 끝나도 새벽기도 인원이 줄지 않게 하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유향에 섞어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고 하였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향을 만들어 성막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의 성막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로 인해 성막 내부는 피비린내로 진동하였고, 이런 피비린내의 냄새를 성막의 언약궤 앞에 둔 향이 중화시켜 모든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향수는 사람들의 냄새를 중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중동 지역과 더운 지역의 향수 문화가 발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고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향(출 30:34-38)이 신약에 가면 성도의 기도(계 8:3-4, 5:8)가 되고, 구약에서 증거궤 앞에 놓인 향이 성막의 냄새를 중화시킨다면, 신약의 성도들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금단의 보좌에 올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구약의 향단이 기도라고 한다면, 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은 실제적인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약의 향이 신약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그 향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금단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향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갈급한 소합향의 기도,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감향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몰입하는 풍자향의 기도, 말씀의 모형인 유향의 기도,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소금을 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소금기도 즉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시절, 너무나 가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에도 12번씩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37편 23절과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힘겨웠던 대학시절을 보내고 결국, 신대원에 입학하여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7전 8기의 신앙 즉 오투기 같은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였고, 현재를 이겨내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소금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적용점

구약에서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 짐승이 대신 대속 제물로 죽었을 뿐 아니라, 그 피가 성막에 뿌려져 성막 안은 온갖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언약궤 앞에 놓아 중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줄줄 흐르게 됩니다. 신약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대속 제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게 됩니다. 구약의 향이 성막의 모든 더러운 냄새를 중화시켜 주었다면, 신약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 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의 향기로 내 삶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을 맞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약의 향이 신약의 성도의 기도임을 알게 하옵시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게 하옵소서. 천사가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단의 보좌에 올라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6일차 2월 28일 화요일

<급한 심령을 담은 소합향의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시편 119:131, 42:1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34-38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131

1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1

오늘의 찬송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갈급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급한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마치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몹시 조급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리켜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급하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 채우고자 간절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당대에 유명한 한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이 철학자에게 “선생님 저는 지식과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학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데리고 허리 정도까지 차는 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머리를 잡고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참 후에 숨을 헐떡이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공기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철학자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찾게 될 걸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급한 상태는 일상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

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갈급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의 기도

어제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소금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소금 기도는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기초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합향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합향의 기도란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이라는 단어는 ‘나타프’ 즉 “방울이 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는 “액체의 방울”, “물방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구약성경 욥36:27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방울이라는 단어가 1회 나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단어 ‘나타프’는 “나무진, 수지, 소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34의 말씀을 보면, 어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소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향품과 섞어 향을 만들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합향은 태양의 열을 받아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진과 같은 액으로 만들어지는 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소합향의 기도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기를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합향의 기도는 ‘갈급한 기도’이며,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9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비 새끼들이 벌레를 가져다주는 어미새를 보고, 목을 쭉 빼고 ‘지지 베베’라고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
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에 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합향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진액을 짜내는듯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점

우리가 진액을 짜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사실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합향이 태양의 열을 받아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진과같은 진액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헐떡이는 것과 같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참 신앙이 성장하고 있던 청년의 때,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할 때마다 배가 달라붙을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소합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

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소합향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7일차 3월 1일 수요일

<상한 심령을 담은 나감향의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시편 51:17, 34:18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34-38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7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34:18

오늘의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상한 심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속’과 ‘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과 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보통 ‘속’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겉’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은 보통 물질의 바깥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주로 ‘밖’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팎’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밖이라는 단어는 물질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겉에 나갔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과 붙어 있을 때 사용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이나 마음속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속도 몸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곧 몸이 아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속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속상하다고 말할 때, 상(傷)은 상처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상하다’라는 말은 물건이 깨지거나 헐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몸이 상했을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

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내 속에 다 썩어 문드러져 편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참 무거운 말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에 관한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감향 기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한 심령’이란 한 마디로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죄로 인해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특별히 자신이 범죄한 것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잘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상한 심령에 비유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어원은 ‘세헬레트’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면, “나감향”이라는 단어가 1회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홍해나 지중해, 더 넓게는 인도양에서 생육하는 조개(strombus dianaе)의 손톱 모양의 꼭지(onycha)에서 채집한 향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향조개(aromatic shell)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태우면 방향을 발산하는데, 성막의 금향단에서 태우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세 가지 성분 중 하나였습니다. 출 30:34의 말씀을 보면, ‘세헬라테’(나감향, onycha)는 향을 제조하는 재료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 향료는 아마 태울 때 방향을 발산하는 연체동물(예를 들면, 달팽이, 대합조개, 굴 따위)의 껍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향이 차지하는 위치

이제 구약성경의 제사 의식에서 향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좀 더 큰 논점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란(Haran)의 견해에 따라 세 가지 상이한 향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물 특히 소제의 보조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둘째로, 향로에 담아 드려진 별도의 향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의 요소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레 10: 1이하, 민 16:6 이하). 셋째로, 금 제단 위에 두었던 향이며(출 30:1-10, 출 30:34-37), 오직 여기에서만 향의 성 요소가 상세히 언급되며(출 30:34-37), 세 종류의 분말 향료(그중 하나가 나감향이다.)와 유향 모두를 동일한 양으로 배합하여 소금을 첨가해 간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향은 제물의 냄새를 상쇄시키는 위생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신, 구약성경이 모두 분향과 기도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참고, 계 8:3-4, 5:8).

앞서 우리는 ‘나감향’의 원료는 조개류에서 채집하여 등껍질을 뺀아서 그 가루로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우리의 상한 심령에 비유를 합니다. 그 만큼 상한 심령, 아파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조개가 뺀아져 불에 태워져 향을 내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심령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새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고발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통회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의 고백에 따르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다.”

나감향의 기도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들추어내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루가 되도록 뺏아 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개 껍질을 뺏듯이 나의 잘못과 죄악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상하고 통회하는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회 자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나온 죄악 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진액을 짜내는 물입을 담은>

풍자향의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누가복음 22:44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 34-38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44

오늘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해독

한 때, 해독주스가 유행인 적이 있습니다. 해독주스는 말 그대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찌꺼기가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독소는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고 원인 모르게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독소를 빼기 위해서 해독주스를 만들어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소는 사실 우리 몸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방해하고, 주님의 그 거룩을 해방하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풍자향이 나옵니다. 이 풍자향에서 나오는 풍자향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자향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향 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 ‘풍자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풍자향은 ‘헬베나’ 즉 ‘젖

을 낸다’라는 말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식물에서 채집된 고무액”을 의미합니다. 이 향은 인도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인 ‘페롤라 갈바니플루아(Ferula galbaniflua)’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갈색 고무나 수지 액입니다. 이 향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다른 향과 배합되면 향기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분향을 위한 향 재료의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면,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자향은 이렇게 소합향과 나감향과 함께 사용되어 그 향을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풍자향의 역할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자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지 않게 하고 기도의 여운이 오래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잡생각들을 제거해 주는 해독역할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경우,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들 때,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면서 기도에 몰입해야 한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몰입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더 빠르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진액을 짜내는 듯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의 진액을 짜내는 몰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 상달 되고, 응답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해독역할

또 한 가지의 관점에서 볼 때, 풍자향 기도가 해독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터 윈크는 타락한 권세에게 전염된 영혼이 진단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조리함과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독하시는 신성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락한 세상을 주님의 통치로 거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바로 타락한 권세로부터 독소가 쌓인 영혼들을 진단하고 회복시키고,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적용점

풍자향은 고무나무와 같은 식물에서 채집된 고무액으로 만든 향으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몰입

하여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몰입하여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몰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의 진액을 짜내는 몰입의 기도를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처럼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몰입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진액을 짜내는 간절히 몰입하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통회 자복하며 몰입하여 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9일차 3월 3일 금요일

<말씀의 모형인 유향의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요한복음 15:7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34-38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오늘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향기로운 향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저마다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도 향이 있습니다. 물론 향수를 써서 나는 향도 있고, 씻지 않아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 특징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85년 쥐 스킨트가 쓴 『향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그르누이는 1738년 한여름 파리의 음습하고 악취하는 생선 좌판대 밑에서 매독에 걸린 젊은 여인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만, 악착같이 살아납니다. 반면, 그의 생모는 영아 유기 살인죄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르누이는 아무런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냄새를 비상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세한 향기에 이끌려 그 황홀한 향기가 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처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목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파리의 향수 공장에서 매혹적인 향수를 개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비정상적인 향수에 집착하던 그는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

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소설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는 개성 곧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성이 바로 삶의 실존이자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성이 없으면, 끔찍한 괴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설은 끔찍한 살인을 통해서 냄새 없는 인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향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는 ‘레보나’라는 단어는 ‘라벤’(희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유향(frankincense)’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보나’ 즉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데, 수액을 건조 시켜서 만든 약재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홍해 연안 즉 인디아, 아라비아와 소말리아(Somalia) 산의 보스웰리아 카르테리(Boswellia Carterii)라는 유향 나무의 진(gum)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향을 의미합니다. 그 황갈색의 진이 건조되었을 때, 흰 분말은 유향의 방울을 형성합니다. 잘 부셔져서 반짝거리며 쓴맛이 나는 유향은 값비싼 향이지만, 피웠을 때는 만족감을 줍니다. 성경시대에 대부분의 유향은 남쪽 아라비아의 세바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세바를 경유하여 들어왔습니다. 이 유향은 고대의 사치성 무역에서 주요한 품목이었고, 구약성경에서 레보나(유향)는 21회 나옵니다. 70인 역본에서는 이 단어가 ‘리바노토스’와 ‘리바노스’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출30:34의 말씀을 보면, 이 유향은 거룩한 향의 성분의 하나로서,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소제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하게 상용하였고, 이 유향은 고도의 신성함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유향은 하나님의 기념물로 드려진 소제의 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한, 민수기 5장 15절을 보면, 이 유향은 질투로 인한 소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향은 진설병에 뿌려졌고, 이사야 43:23과 예레미야 6:20의 말씀을 보면, 유향은 희생 제사의 특별한 요소이어서 이 단어는 전체의 제의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3:6과 아4:6,14의 말씀을 보면, 신부는 이 유향으로 향기롭게 했습니다. 사60:6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유향을 가지고 오리라는 것은 유대인이 예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던 선물 중에 리바노스(유향)가

포함되었습니다. 히7:25의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리바노스는 그분의 신성과 중보를 위한 그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계8:3과 계8:5의 말씀을 보면, 에서 향과 향로(리바노토스)를 중보기도 및 심판과 연결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능력(계 8:3-4, 5:8)을 나타냅니다.

레보나는 인디아, 아라비아와 소말리아(Somalia) 산의 보스웰리아 카르테리(Boswellia Carterii)라는 유향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gum)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품으로 이는 말씀의 모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증언합니다. 즉,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지식과 경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를 찾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영혼을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참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평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경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의 모형인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도록 말씀의 확신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지식

과 경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10일차 3월 4일 토요일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소금 기도가 되려면?>

출애굽기 30:34-38, 마태복음 5:23-34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34-38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50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23-24

오늘의 찬송 544장 울어도 못 하네

언약의 중요성

인류 역사상 ‘언약’이라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와 사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요한 약속의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상 중에 ‘언약’이라는 주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창6:18)라는 단어 ‘바라’(자르다, 끊다, 새기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내용 안에는 깨뜨리는 쪽에는 죽음과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엄정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후 아

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약 신학의 관점 아래 소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의 기도

소금을 치는 기도 ‘말라흐’의 뜻은 “소금 치다, 맛내다, 사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라흐(동사)는 “찢어 버리다, 흠뜨리다, 사라지다”를 의미하고,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 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6의 말씀에서 이 단어에서 한 번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닦았음을 보여줍니다. 신생아를 물로 정결하게 씻은 후 소금을 뿌리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소금은 여기서 단순히 아이의 피부를 건조하고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방부제의 효능이 있는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아이의 건강에 대한 강한 소망과 기원을 표시하였을 것입니다. 이 관습은 동양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혹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확을 위해, 또는 아기가 태어난 후 부정한 상태에서 떠났음을 나타내기 위해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습은 지금도 아람인 사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귀신의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흐’(동사)는 ‘멜라흐’(소금)에서 유래했으며, “소금 치다, 맛을 내다”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4회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엄숙한 것이어서 결코 파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희생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윌슨(H. C. Wilson)은 희생 제물이 보존되지 않고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보관하는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신성한 향과 미취나에 의하면, 심지어 희생제사 불의 떨감에조차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예레미야 34장 17-18절의 말씀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찢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그들은 팔아 넘겨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

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시편 105편 8-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영원성

소제물에 언약의 ‘말라흐’(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엄숙한 것이어서 결코 파기할 수 없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하라 하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23-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증언합니다.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경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점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말라흐)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엄숙한 것이어서 결코 파기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신성한 향과 미취나에 의하면, 심지어 희생제사 불의 떨감에 조차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뿌렸던 것이라면,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해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언약의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소금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

서. 소금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
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11일차 3월 6일 월요일

<많은 무리 중에 특별한 우리>

마가복음 3:7-19a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팬인가 제자인가(not a fan)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하실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궁금해야 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팬’은 예수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며, 우르르 스타디움(교회)으로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예수님을 응원만 할 뿐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모른다는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교회는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략’하고 있음을 짚습니다.

저자는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지

실제로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지’,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자신의 내면보다 밖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본문의 내용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시니’(7절)로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 절에 나온 나병환자의 치유 사건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사건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방식대로 유지되고 세워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전통과 방식대로 계승되고 지켜지기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한 주님의 행위는 세상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물러나셔서 바다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이 큰 무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남쪽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더 남쪽인 이두매,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더욱이 이들이 모여든 이유를 분명히 말하여 줍니다.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하지만, 마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호의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염불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말처럼, 이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10절에서 이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다.”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함으로써 몰려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경건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길을 본받기 위함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이라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추종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무리를 소개하여 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나오는 무리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 자신과 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분명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자로 12명을 세우십니다. 분명한 구분선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팬으로 남겠는가? 제자로 남겠는가?

적용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앞에 나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문제, 안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팬’으로서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팬으로써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추종하는 ‘팬’이 아닌 ‘제자’를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기도문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는 참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12일차 3월 7일 화요일

<하나님의 가족>

마가복음: 3:20-35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 예수의 친
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 내
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
아낸단 하니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
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
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을 강탈하리라 28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
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
렸다 함일러라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
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
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오늘의 찬송 552장(웬 일인가 내 형제여)

2012년 영화 파파- 킬러폴 가족

한국 가요계의 마이더스 손이었던 춘섭은 빚을 내어 3억을 투자했던 톱스타가 미
국으로 도망간 바람에 그 톱스타를 찾으러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시민권이 필요했던 춘섭은 급한 김에 계약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의 딸인 준과 다국적 동생
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천재적 예능감을 숨긴 채 가족을 위해 책임감으로 무
장한 까칠한 첫째 딸 준, 엄청난 거구의 흑인 청년으로 대장금을 통해 한국어를
배워 고전 한국어에 능통한 둘째 아들 고든, 스모키 화장에 시니컬한 이슬람계의
얼음공주 셋째 딸 마야, 랩으로 세계 제패를 꿈꾸는 백인 쌍둥이 넷째, 다섯째 아
들 지미와 타미, 파파를 향한 무한 애정을 지닌 핑크공주 막내 로지였습니다. 아
이들은 아빠가 없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신세가 되고, 아빠 춘섭은 아이들이
없으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서로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가족이라는 이

름으로 한집에 살고, 가족처럼 보이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한 명이었지만,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이들과 그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아빠! ‘가족이니까 헤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큰 딸 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서로 생김

새가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레인보우 가족입니다. 큰딸 준이의 희생과 가족의 건사에도 불구하고 셋째 딸 마야와의 갈등은 풀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위해 늘 오디션을 보기 위해 미국 방방곡곡을 다니느라, 가족의 모든 일은 첫째 딸 준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있는데, 따뜻하고 평안한 가족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 한 곳에 아픔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의 문제: 예수님의 가족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본문 시작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서 많은 사역으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붙잡기 위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친족들과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가족에게 불명예나 수치를 주는 것은 큰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수치를 안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건사하지 않고, 가족의 보호하에 있지도 않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가족의 보호를 외면하고, 당시에 외면받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 하나하나가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싫어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은 우리인데 우리와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

에 대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기에 배척과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창피하게 만들어 버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그의 가족들이 분을 내고 그의 말에 대해 업신여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성경의 질문: 진정한 가족이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본문 32절에 우리들이 여쭙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다음과 같이 대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함께 있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러앉아 있다고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족 공동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든지”(whoever)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지개(Rainbow)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족은 바로 무지개 가족(Rainbow Family)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레인보우를 세우는 것

비 온 뒤 안개 너머로 가끔 무지개를 본 사람들은 무지개의 색깔이 일곱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된 것은 19세기 초 뉴턴이 무지개 실험을 다루면서 제창한 것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족은 흑, 백, 적, 황, 청의 다섯 가지 색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두, 세 가지 색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지개를 보는 시각도 각양각색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뒤 물방울이 많은 대기에 햇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호입니다. 그것은 빛의 굴절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기에 각각의 다양한 색이지만 그 색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늘에 아름다운 수채화로 채색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지개는 빛이 있어야지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태양을 등지고 하늘을 봐야지 보입니다. 또한,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의 고유한 색들이 합쳐서 다른 색을 창조하여 아름다움을 더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바깥에서 안으로 보는 색깔의 순서 ‘빨주노초파남보’는 빨강에서 보라까지 처지는 색깔 없이, 어깨동무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컬러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색깔을 가졌음에도 어느 색깔 하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영역을 넓히려 하거나 다른 색깔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자기 외의 다른 색깔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기 색깔을 눈부시게 빛내면서 같이 아름답게 둥근 모습으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마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인보우 패밀리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둘러모여 앉아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고유한 색깔이 있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고유한 색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색들 모두 저마다 멋진 색감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 자신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유한 색들이 함께 있을 때 기대밖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색깔이 있지만, 옆에 다른 색을 둠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오늘 믿음의 가족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용점

우리는 때론 개념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학생이라는 개념, 성도라는 개념, 하지만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이라는 개념만 있을 경우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느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곱가지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가족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 공동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문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비록 일곱가지 무지개 색처럼,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농부의 마음>

마가복음 4:1-20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본문을 읽을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왜 씨뿌리는 농부는 굳이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될 것을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곳에 뿌리는가?’에 대한 의문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참 이 농부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준 어리석은 종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당시 성경의 생활문화를 안다면 이러한 오해는 무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우리의 생각에 잘 와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는 매일 매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옥한 토양으로 덮인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신약시대에는 로마가 차지하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척박한 중앙의 산지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척박한 산지를 이용해 이스라엘이 만든 것은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만든 테라스 농경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농경지는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경지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깎아내려 경지화 시킨 계단식 경작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다양한 밭은 바로 테라스 농경지를 말합니다. 각 계단의 끝에 있는 담벽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고운 흙으로 인해 ‘좋은 밭’이 만들어 집니다. 각각의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바로 ‘길가의 밭’입니다. 테라스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됩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테라스의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 밭’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테라스 농경지를 보면 농부가 씨를 부리는 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밭이 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씨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눅 8:11), 천국 말씀(마13:19)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씨 뿌리는 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테라스 농경지처럼, 우리가 뿌릴 땅들 역시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이 땅에 잘 심기어져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농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부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릴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의 모이가 됩니다.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밭길에 떨어져 영양분 부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대하

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잘 뿌리 내려 좋은 작물들로 커 열매를 주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오늘도 삶의 일터에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잘못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차라리 쓸데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는데, 복음에 대해 더 거부감만 일으키는 데 왜 굳이 받아들이기 싫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러한 회의감과 낙담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잃어 버린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척박하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농부는 왜 씨뿌리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뻘한 상황을 알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뿌리기를 멈추지 않는 농부의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늘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단단한 길가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이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가시밭 길에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근심과 좌절하는 복음 전도자로 서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님을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역할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구어 씨앗을 풍성히 뿌리면 됩니다. 그 이후의 몫은 하나님입니다. 그 씨앗에서 탐나는 열매를 맺고, 낱알들이 많이 열리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척박한 상황이라고, 가능성 없는 조건이라고, 잘못된 토양이라고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히 지금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까, 나지 아닐까, 소출이 적을까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추수 때에 많은 소출과 누렇게 영근 황금 들녘을 기대하며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에게는 단단한 길가가, 울퉁불퉁한 돌밭이, 엉겅きが 자란 변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보고, 기대하고 있는 곳은 지금 자신이 수고하고 있는 그 땅, 추수 때에 자신이 거둘 소출이 자라 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회당에서 쫓겨나시고, 돌에 맞을 뻔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는 일들을 친히 목격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처럼 씨앗이 길가로, 씨앗이 돌밭에,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데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하여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소출량은 이스라엘의 토양에서 평균 10배의 수확을 올린 것을 감안 할 때 대단한 풍작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의 농부들은 좋은 밭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잇는 게네사렛 평야는 비옥한 충적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평야의 토양은 농부들에게 최대 40배의 수확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였더니 주어진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용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설령 그 밭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자갈 밭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지 아니할까? 염려와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뿌리는 역할은 사명자가 할 일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 걱정과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촉구

하고 계십니다.

기도문

복음의 근원되시는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지 아니할까?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아래 묻어 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마가복음 4:21-34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 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의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가는 비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맞는 수가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맞아도 별것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옷이 젖는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오랫동안 맞아 폭 젖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스며드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를 잘 다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람이 등불을 곡식을 담은 말 아래나 사람이 쉬는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두움을 비추게 하기 위함같이 임하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방해나 무지함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등경위에 비친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함으로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면 아래 우리를 복음의 용사로 부르시고,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고, 흑암에 둘러 싸여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지고, 그 진리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오도록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뿌리는 비유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농부가 뿌린 씨를 뿌려놓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서 곡식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듯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구원의 증인된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가장 적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는 너무나 적어서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장차 싹이 트고 자라서 3~4m나 되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다랗게 자란 나무에는 많은 새가 날아와 거처를 삼게 됩니다. 이와같이 하나님 나라도 시작은 아주 적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때가 되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어 모든 족속을 구원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원리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세상의 권세가 휘두르며 복음을 위협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시작은 매우 미비하게 시작하게 될지라도 그 끝은 매우 창대하고 위대하게 되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적용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깨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는 작은 것이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미약한 것이 결코 미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미약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미약할지라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문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삶의 풍랑 속에서>

마가복음 4:35-41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은 마스터키

20세기 중반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재력가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뉴튼, 루이스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이었습니다. 그들이 뉴욕에 가서 앰배서더 호텔 29층에 묵었던 때였습니다. 첫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늦게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들은 술기운에 호기가 생겨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올라갔는데 점점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29층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1층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자 아찔했다. 바로 그때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활짝 웃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지요.”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텍사스의 재력가 3명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자 텍사스 지역에 대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빌리 그래함도 큰일을 할 수 있었고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 어떤 키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직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없어서 좌불안석이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본문의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라사인의 땅으로 이동하시기 위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민물인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담수호로서 남북의 길이가 약 20km이며, 동서의 길이가 약 12km정도가 됩니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약 50m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212m나 낮고, 호수 주위는 골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남동쪽 끝으로의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갈릴리 바다는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높은 곳의 차가운 공기가 깔때기 역할을 하는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와 호수 면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이러한 폭풍으로 인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로 노 젓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술과 힘으로 풍랑을 헤쳐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계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상황을 본문 3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시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자들은 무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폭풍이 부는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폭풍이 불고 커다란 파도가 몰려올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예수님만 깨우면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해석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광풍(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관복음서 하나 하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8:25, 새)라고 합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눅8:24, 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막4:38, 새)라고 마치 예수님께 따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살려 달라고 구하지만, 강조점은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선생님도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깨어 있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지만, 그 해석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깨어 계시더라도, 인간적인 예수님만 깨어 계신다면, 즉 우리가 그분의 신적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방법

고통당하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 신적 능력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을 깨워서 일어나셔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

느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서 죽게 될 만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을까 불안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믿음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해도 우리에게 큰일이 닥치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의 문제 해결 방법은 창조주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 능력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적용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좌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 그 파도에 휩쓸려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왜 침묵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한탄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기꺼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거센 파도를

거스르고 우리를 평화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는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환경을 보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비천함에서 온전함으로>

마가복음 5:1-20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의 찬송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성경 속의 상황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비천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적이 얼마나 기이한지 본문 3-5절은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체 밖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도 못합니다. 초능력이 아닙
니다.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
지어 자신을 자해까지 합니다. 누가봐도 온전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귀신들린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
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천한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염병의 확산, 그리고 사회의 경쟁체계 속에
서 우리는 죽은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로 비방합니다. 나 아닌 타인을 밟아 죽이며 일어서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쟁 논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에 휘둘려 살아갑니
다. 자신을 구속하는 사회적 울무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삶이기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문제
앞에 우리 모두 제약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격리시키고, 추방하고, 홀로 두려워 합니다. 여기에는 참
위로도,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리 비참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 비참한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의 은혜

다시 본문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통제하고 제어하려 했지만, 이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 받고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분명히 이 말은 ‘귀신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뿜는 말이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의 말이 아니라, 절박한 인간의 울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본문의 뉘앙스를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은 사실 뒤바뀌어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의 전개에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비참함을 아시고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구속에 사로잡힌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11-13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은혜

오늘 우리도 비참함에서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걸음만 옮겨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놀라운 점은 세상은 우리의 온전하여 진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분명히 정상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옛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두려워합니다. 그의 옛 행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18-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비참한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자리에서

증언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증언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게 다가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변해서 원래의 좋은 모습으로 되살아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만큼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의 삶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질문해 봅시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회복의 그 주인공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내게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세심한 손길로 인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마가복음 5:21-43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
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
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
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
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
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
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
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
다 하시니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441장(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절망하고 회의와 좌절에 빠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악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둘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도, 못살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수단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득세하고 잘살 때,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번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아, 이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시련이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일년 이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면 그때는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하고 절망합니다.

절망의 자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열두 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절망과 소외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불행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5:25-26)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하다 보면, 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받게 됩니다. 악성 빈혈은 노화현상을 가져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 여러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치료받지 못했고 많은 고생 가운데 재산까지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런 생활을 했던 그녀는,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시달림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는 당시의 이름난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조금씩 처분해서 병원비로 사용했을 것이고 이때만 해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의사마다,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장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독한 약을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몸도 상처를 내가면

서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

의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습니다. 그리곤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병인 혈루증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자기를 엄습한다고 할찌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었고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고통입니다.

동병상련

오 헨리의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건만 훔쳐서 나오려고 했는데 주인한테 들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고 주인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까 봐서 손을 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손만 들었습니다. 잘못하다 총을 꺼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손 다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한 손만 드는 것입니다. 왜 한 손만 드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한 손은 신경통이라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도둑질하러 왔던 그 도둑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 신경통에는 이런 것이 좋다, 신경통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날이 밝았다고 합니다.

무얼 말하는 걸까요? 동병상련입니다. 강도와 주인,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병을 앓는다고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럼 위로가 됩니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조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여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에다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타메.. 타메..’를 외쳐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은,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고독, 소외감이 어떠했을까요? 율법마저도 종교마저도 그들을 부정하다 일컬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외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중 속의 소외를 느낄 때 그 외로움과 고독은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드는 겁니다.

오래전, 영국 출신의 작가인 부르크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

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여객선을 타려고 부둣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행객이 있었고,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전송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부르크를 위해 전송하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탈해진 그는,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6실링을 주면서, 자기를 위해 손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받은 그 아이는, 그가 탄 배가 부둣가를 떠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열렬한 전송을 받았던 부르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심이 없는 환대는 더 큰 고독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라도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희망의 자리로(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이 절망의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떨게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의 양들은, 산속을 헤매다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 종종 곤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의 풀이 맛있었기 때문에, 양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툭 튀어나온 바위 끝에 난 풀에 유혹돼 300~400 미터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다시 뛰어오를 수가 없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곤경에 처한 양은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지만, 목자는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며칠 동안 그래도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안 울부짖다가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비로소 목자는 밧줄을 들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의 울부짖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구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련한 양이 자기를 구하러 온 목자를 피해, 뒷걸음을 치려다 자칫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움을 부르짖는 순간에 그리고 목자만 바라볼 때 목자는 양을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34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 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적용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라는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절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34절).

기도문

사랑의 주님, 비록 수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다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18일차 3월 14일 화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마가복음 6:1-13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때에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의 찬송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오래전 서울에서 연예인 교회를 섬길 때, 담임목사이셨던 김중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말고 교인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을 때 봐야지 진정한 성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다양한 호칭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인”,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등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군중’과 ‘제자’로 나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군중은 단순히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는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이적을 함께 체험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함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 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반면, 삭개오라 하는 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후에 남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 하는 인생관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변화된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름받은 성도,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화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늘 말씀 7절에 “부르사(call)”는 말씀과 “보내시며(send)”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란 축복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터 편 양은 선교사를 자원하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많은 선교사가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떠나는 딸에게 210달러 값어치의金を 주며 ‘안전하다(safe)’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선교지의 앤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delighted)’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은 단순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뛰어넘어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편안함과 안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복음증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2인조 6개 팀, 과연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6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스승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그러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알라바마의 프로렌스 지방 외곽지대를 흐르는 테네시 강에는 댐을 막아 만든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댐 아래에 있는 배가 그 거대한 댐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배가 날지 않고서야 어떻게 댐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댐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 단계로 갑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첫 번째 갑문에 들어선 후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갑문에 들어서면 수문이 닫히면서 두 번째 갑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수면이 높아지면서 배가 위로 떠 오릅니다. 그러면 배는 다시 두 번째 갑문으로 들어서고 다시 수면을 따라 부상(浮上)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배는 댐의 수위와 같은 지점까지 이르게 되면 배는 통통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가 댐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갑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갑문을 따라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향해 나가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고 엔진에 힘을 가한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문에 들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댐 장벽 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미국의 화폐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In God we trust”라는 글자가 화폐 위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라는 말입니다. 건국 초기 인디언들과의 전쟁과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거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청교도들은 믿었습니다. 독립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청교도들의 후예들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시련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즉- In God I trust’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8-9절).

말씀하십니다. 대개 여행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행용품을 담기 위해서 배낭 같은 “주머니”를 찹니다. “전대의 돈”이란 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상금으로 동전 몇 푼을 넣어 허리에 칭칭 감고 다니는 “푼돈”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위해 갈아입을 옷 두 벌 짚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여행용품은 화려한 휴대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휴대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지꼴로 살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껍을 의지합니다. 부모가 잘사는 사람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철면조는 조그만 개울을 건너가기 위해서도 무감각할 정도로 자기 날개를 때리지만, 철면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철면조는 땅에서 1M 이상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쉬이 장소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그 날개로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은 폭풍이 불면 폭풍을 두려워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합니다. 폭풍 때문에 그는 말로 더 높이 날 수도 있고 시속 164km로 급강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칠면조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높은 곳에 올려다 놓으려고 밤낮 애를 쓰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뢰하는 자는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대신 가진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본다면 주님이 돌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양식 문제든지, 의복 문제든지, 안전 문제든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 가운데, 아셀트 선교사는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밤마다 아셀트 선교사의 집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아셀트 선교사의 집에만 오면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집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어서 식인종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식인종의 대표가 아셀트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집을 중무장하고 밤마다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요?” 아셀트 선교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잡아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잔칫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마다 중무장

한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서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 실상을 알려 왔습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중무장시켜서 나를 둘러싸 진을 친 것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소.” 그 말에 그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영적으로 육

적으로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었다면, 엄청난 부자들이 됐을까요?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적용점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받는 축복은 원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꿔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지속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건강도, 의식주 문제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의 안일과 부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 6:14-29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16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베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21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28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의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범죄자의 모습

범죄심리학에서는 범인은 반드시 범죄현장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범죄현장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돌아왔다가 잡힌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돌아올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범죄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

기 나오는 헤롯의 행동도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죽이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었고, 실제로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큰 능력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대항해서 옳은 말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요한은 선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요한이 선지자였고, 선지자로서 의롭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을 죽인 헤롯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두려움이 헤롯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헤롯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던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초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무런 초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었다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부활했다면 헤롯에게는 재앙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붙잡혀서 벌을 받지 않아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요행히 들키지 않아 벌을 면하게 되었다 해도, 언젠가는 짓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한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죽은 요한과 나이도 비슷하고 전파하는 메시지도 동일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진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므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모이는 상황, 요한의 제자들은 몹시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29-30).

이제 자기는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요한의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이제 요한의 사명이 완수된 마당에 더 이상 그가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요한이 계속 활동한다면, 그것은 왕이 도착한 후에 나팔을 불어대는 나팔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시점에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였고 사명을 완수한 요한이 죽어야 한다면 평안하게 좋은 모습으로 죽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끔찍하고 억울하게 죽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수를 누리다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죽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수명대로 건강하게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 죽음은 오히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생애에 부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불의를 책망하고 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삶에 어울리는 죽음이었습니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순교도 하겠는데, 문제는 자신이 고문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악독한 반기독교적 정권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산 채로 꺾질을 베킨다든가 하는 고문이 자행되곤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곳으로 부르실까 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한다면 간단하겠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안 믿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 버릴지도 몰라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산 채로 꺾질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는 일로 부르심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교할 믿음은 있는데, 고문을 견딜 수 있

는 능력이 없어서 순교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일로 부르신다면, 그런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의 몸은 머리도 없이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삶과 죽음을 강렬한 필치로 표현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시지만 한 때 재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부도의 위험 속에서 정말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특기는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나 구제를 위하여 헌금할 일이 생기면 헌금이 없으니 어음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말하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어음을 끊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음을 끊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어음을 막기 위하여 피 마르는 고통을 당하곤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어차피 피 마르는 고통을 당할 바에는 자기 사업만을 위하여 그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고통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통당할 바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고통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후 헤롯은 전처의 본국과 전쟁을 하다가 참패하여 도주해야 했고,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사서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 헤롯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미혹했던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지는 바람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목이 찢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입니다. 반면에 비록 비참한 죽음이지만, 의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성도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에 어울리는 의로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겁한 인생을 산 사람은 비겁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적용점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어두움입니다. 가능하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어둠의 질

은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종말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종말 신앙의 매우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종말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건강한 종말 신앙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깨닫게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죽어야 합니다. 죽는 신앙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종말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기적의 통로>

마가복음 6:30-46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의 찬송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와이트 목사의 감사기도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와이트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감사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날씨와 관련하여 감사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어떻게 감사기도를 하십니까?” 궁금해하며 목사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다른 날들은 오늘과 같은 날씨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체질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습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지속되면,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어떠한 이적을 낳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문의 배경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받으신 후 제자 12인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부여하여서 각지로 파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매우 좋았습니다. 승리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보고가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침울케 하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구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추앙받던 세레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레 요한의 제자로부터 세레 요한이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목 베임을 당했다는 슬픈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잠시 조용히 계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어느 외딴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 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서 계시고, 많은 무리가 따라온 곳은, 다름 아닌,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야 그들이 마을을 찾아 들어가 먹을 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먹을 것 사러 마을로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무리 둘러 보아도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은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서 떡을 나누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말고, 즉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체는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대중적 인기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제안

제자들은 이런 제의를 하였습니다. 35-6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가서 각각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돈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면 한 사람에게 한 개씩이나 돌아갈까요? 제자들이 머리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빌립은 수학적이며 사무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무적으로는 실수가 적은 반면, 신앙적인 모험심은 빈약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에겐 감격이란 거의 없습니다. 이성에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에 삽니다. 제자들은 경제적인 숫자의 계산 이상의 하나님 축복과 능력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계산대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면 이 무리의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것으로 부족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얼 말씀합니까? 문제의 해결은 경제 개념만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경제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즉,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 관한 문제라면 그 어떤 것이던 간에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머리와 경제 계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과 인간의 무능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번 돈만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벧새다들에 모인 무리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거기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대조적입니다. 빌립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비수학적이며, 안될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그다음은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 가지고 왔던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비록 작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으로 큰 이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많은 물질이나 힘센 권력이나, 높은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사심 없이 온전히 바치는 그것이 언제나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5천 명을 먹인 것이 빵을 많이 사다가 나눠주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큰 이적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먼저 깨닫고, 자기부터 먼저 옳은 일을 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악과 싸워나간다면 이 위대한 이적이 오늘 20세기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전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겨레를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바치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시간, 지식, 물질, 재간, 지위,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받은 모세는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나이도 나이려니와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양하였습니다. 주여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양이나 몰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미디안에서 양 무리나 인도하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60만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를 향해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고, 반석을 칠 때 샘물이 솟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제단에 바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면 주님 뜻대로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수중에는 적은 것도 많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시매

41절에,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얼 말합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구나 모든 문제 해결의 마지막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며, 물샷틈없는 계획과 강력한 추진을 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여라도 지혜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왜 잘못 됩니까?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산에 넣지 않고, 성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어도 이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순종! 하나님을 명령을 완전히 믿었던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짓는 순종!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순종!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나 도는 순종! 이방인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된 그 순종!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려운 때입니다. 다 부족하고 궁핍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인색해지며 남을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너도나도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적용점

우리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놀라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해야 하는 때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궁핍해지면 나누기 싫어집니다. 나누려 해도 나눌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주님께서 나누시게 하면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헌신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적이 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매우 갈급하고, 목마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궁핍과 결핍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냉소적이게 합니다. 이러한 이때, 더욱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드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남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의심과 두려움>

마가복음 6:47-56

47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의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어느 성자의 깊은 잠

어느 성자와 제자들이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공포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자가 밤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자는 잔디 위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많이 걸었습니다. 피곤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고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렵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는 눕더니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한숨도 자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었느냐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자는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오늘 말씀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평안하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 하는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바빴던지 설 시간도, 음식 먹

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면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오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일행보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조용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걸어서 그곳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짜증스러운 표정이나 귀찮다는 마음 없이 이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은 사서 먹을 것도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하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생산하지만 좋은 곡식은 다 로마로 가져가고 유대 사람들은 거의 연명이나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던 보리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내놓았더니,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고 그때 먹은 사람 이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덩이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얼마 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떡 다섯 덩이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이적을 보자, 많은 유대 사람들은 큰 감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이 나라 식량 걱정이 없겠구나 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만일에 예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왕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바다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 에는, 혈문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상상봉에는 사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 불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는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곤 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갑자기 들이닥치고 맹렬한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8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누구나 당하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어려움이 풍랑과 같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난데없이 생각지 않았던 슬픔도 오고, 환란도 오고, 시험도 오고, 풍랑도 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재벌이었던, 그리이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틸 오나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있는 사람들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가용 제트비행기와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열개의 섬을 소유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욕실이 갖추어진 크리스티나라는 요트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재클린 바우비어 케네디와 1968년 10월 21일 결혼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 어느 날, 그의 24살 먹은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는 실망에 빠진 그의 얼굴을 보고 “오나시스가 하룻밤 사이에 늙어 노인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전 재산의 거의 다를 잃어버리고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불어온 태풍은, 소중한 것을 다 빼앗고 갑니다. 배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읊은 한순간에 인생의 폭풍으로 재산과 자녀, 아내와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사랑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생동안 영원히 항상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쳤던 그 풍랑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다닐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48절 말씀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환란 중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혼자 우리가 파도와 싸우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히 여

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떠나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더 굳센 의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바라보면 큰 어려움도 적게 보이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면 우리는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독재자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반정부 인사인 케파 쎌판기목사의 서재에 권총을 든 두 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로서 쎌판기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막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쎌판기목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분만 시간을 주시요. 나와 당신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소.” 괴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쎌판기목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린 것 같은 기

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품에 맡기오니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눈을 뜨자 괴한들은 권총을 품에 넣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목사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몸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2분 사이에 그들은 감동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담대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 환란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두려움과 믿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때 놀라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까?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 노한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이적을 보고 감격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세찬 바람과 물결이 밀려온다고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것처럼 감격하고 좋아하던 때가 바로 었그

제였는데 오늘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무어(Alexander Plummoore)’의 간증입니다. 그는 65세가 되도록 아파 본 일이 없었는데 정기검진을 하다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돌아가셨고, 삼촌도 두 사람이 나 그 병으로 죽었고, 사촌도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순간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하여 운동도 사업도 다 정리하고 사람조차 만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희망적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은 죽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오직 이 제목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으면 주님과 만난다는 소망이 생기면서부터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 어느 사이에 체중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이건 이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엔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강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고민하는 분 혹 계십니까? 과거에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과 멀리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멀어지면서 의

심이 생겨서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고 무서워지면, 점점 물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이를 때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부르짖을 때, 즉시 대답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익숙하고, 파도와 바람을 잘 극복하는 아무리 경험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술과 힘, 그리고 경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아도, 목적지에 결국 도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986년도 노벨 문학 수상작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은 세계 제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커스트(대학살)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 정도 된 한 소년이 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체 수인들이 집합된 자리에서 교수대에 그의 목이 매달려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시간 이상 목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데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이 소년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자신의 가슴속에서 피눈물나는 외마디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한목소리를 듣습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밤 사경이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곤란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보고 계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려 물속으로 빠지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건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4: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잔잔할 때만이 아니라 폭랑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적용점

우리의 삶이 폭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하고 겁이 난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우리 가운데 곤란한 환경에서 무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눈으로 폭랑 속에서도 주님을 밝히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랍니다.

신령한 귀를 열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신 주님,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켜버린 듯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전통과 신앙>

마가복음 7:1-23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 이러라)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 이르시되 이 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의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전통에 대한 오랜 논쟁

중세기 1,000년을 흔히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들을 왜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이던 교황이 국가의 수장인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시키기도 하고 즉위시킬 수도 있을만큼, 교회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가 암흑기로 전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승이나 제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비판받고 정죄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때에 신학자들이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뽕족한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성찬식을 마치고 모아둔 포도주에 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인가? 쥐가 거룩해진 것인가?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떡을 나눌 것이냐! 빵을 나눌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신학자들이 이런 것이냐 연구 하고 있으니, 중세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바른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소하고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 타락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불행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신앙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의 결례를 행하지 않은 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유대인들의 식습관에 의한 위생적 필요에 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결례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켜져서 심지어 ‘야다임’이라는 탈무드의 소책자에는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 손에 부으면 정결하지만,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규례가 정해져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삶에 중요한 행위법으로 의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 율법에 능통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한 해석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은 구전으로 전해 왔으며 오히려 기록된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습니다. 이런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이고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통하여 주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왔습니다.

비난의 빌미, 전통

본문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엄청난 속도로 유대 땅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이르자 예루살렘에서는 몇 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예수님께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흠을 잡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것처럼 무엇이든지 비판 거리만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저는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 설교 시간을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저는 결혼 30년째입니다. 그 동안 아내는 저에게 32580번의 식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식사 메뉴를 기억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틀 전 식사 메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매 식사를 통해 저는 살아갈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잘 기억하는 것보다 식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같은 배를 탄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줄이고, 참여와 헌신은 늘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학생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화장을 했어! 왜 치마가 저렇게 짧아! 왜 스타일이 저래!” 한참 비판을 하다가 곧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지 않으니까 저절로 구경하게 되고, 그렇게 구경만 하니까 비판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하면 저절로 비판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벤치 인생이나 관중석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라이먼 비처(Lyman Beecher)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가 비판하면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장이 맞는 줄 알 거예요.”

그때 비처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밤에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작은 짐승이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의식중에 손에 있던 책을 몇 권 던졌어요. 그러자 곧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데 알고 보니 스킵크였어요. 그때 냄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저는 그런 짐승은 그냥 내버려두겠다고 결심했어요. 스킵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에요.”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면 더 악취가 생기고 나중에는 자신의 꼴이 더 추해집니다. 그때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한, 잠언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 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전통이 전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서리 집사제도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말씀으로 훈련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속 신앙이나 유교, 불교 등에 젖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교회 사역을 맡

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집사가 아닌 1년간 봉사하는 서리 집사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집간 젊은 새댁은 시댁의 전통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회사의 전통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 그들이 목숨처럼 중시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고르반 전통처럼,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헌금과 헌물을 확보하려고 사람의 전통을 세워서 부모 공경이란 계명의 원래 의미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과 위선을 무섭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더라도 겉으로만 경건하고 그럴듯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형성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전통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진리처럼 받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Grimm) 형제의 우화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노인이 아들 부부와 4살짜리 손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침침한 노인이 식사 중에 노인은 손을 떨다가 음식을 떨어뜨려 식탁보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화를 내며 그다음부터 노인을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 구석에서 노인은 사발에 담긴 음식을 따로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항상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손을 떨다가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발이 깨지자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돼지세요? 이제는 돼지 여물통으로 식사하세요.” 그다음부터 돼지 여물통에 식사를 담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 부부는 4살짜리 아들이 나무로 어떤 조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뭐 하느냐?’라고 묻자 어린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커서 아빠 엄마에게 식사를 담아드릴 돼지 여물통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젊은 부부는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그 노인은 다시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노인에게 소리 지르며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 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참 경배

본문 6,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으로는 가장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입은 있지만, 손은 없고, 말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데 3번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은 잘했지만, 마음으로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으로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옳은 것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하고, 틀린 것도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옳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 자기중심주의를 말씀으로 잘 깨뜨리고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어떤 목사님 고백입니다. 그분이 갓 결혼했을 때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방도 닦아주고, 설거지도 함께 하고, 연탄불도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설거지를 하는 아들을 보고 혼을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느냐? 3대 정승과 6대 대제학을 지낸 가문이다. 사내가 부엌에서 아녀자가 하는 설거지나 하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겠느냐?” 그때부터 그분은 설거지를 끊고 성경 말씀보다는 가문의 전통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아내 사랑이 가문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임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좋은 전통이라도 전통에만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라고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면 전통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물론 전통도 필요합니다. 너무 열리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닫혀도 안 됩니다. 가나안을 얻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질서도 지키고, 나이와 기득권도 존중해주고, 직분과 자리도 존중해주고, 교회방침과 교회전통도 존중해주어야 합

니다. 것처럼 틀을 존중하면서도 항상 열린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위선의 옷을 벗고 더욱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하고 헌금과 구제를 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식이 외식을 낳습니다. 외식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을 압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진실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높여줍니다.

적용점

참 놀라운 것은 너무 좋은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자체가 전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교만과 허영, 그리고 사치와 위선으로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만과 허영 그리고 사치와 위선은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삶에 사로잡히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유행과 외형, 전통에 따라 살아가게 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허영과 위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했던 내용(복음)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전통을 뛰어넘어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형식과 전통, 허영과 외식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바로 깨달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믿음 VS 불신>

마가복음 7:24-37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
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
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
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
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
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
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
친 사건과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
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방 땅에
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근거는 앞선 본문
1-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이면서 외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결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으

로 가셔서 이를 친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수로보니게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된 여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의식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앞선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베이스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라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대조하여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적과 구원의 역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실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는데,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길을 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방식: 간절한 믿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 사건을 베푸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함께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대화를 청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은 귀신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냉정한 말씀이었습니다.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여인은 물려서지 않고 이렇게 응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뭔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쉽게 포기할 법도 한데, 여인은 예수님이 던진 말씀을 비틀어서 응수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대하셨던 대답을 들으셨는지 이렇게 응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어쩌면 여인에게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겠다는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딸을 치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어서 나오는 사건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사람들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 달라고 간정할 때,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취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입니다.

적용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신이 너무나 가득한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이게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

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고,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증명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신비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이것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리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문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을 주님을 불신하게 하고, 주님을 어리석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빛이, 소망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무지는 넘어선 신앙>

마가복음 8:1-10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 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의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적이 신앙에 미치는 의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였습니다. 사실 모든 학문의 첫 시작은 ‘놀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에야 학문의 종류가 많았지만, 그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심리학이 발달되지 않았을때에는 자연의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서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놀람’은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놀람은 신앙과 관련하게 될 때,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그 놀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적은 곧 놀람이고, 이 놀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 설계도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도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이적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설계도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병 2어와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는데,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병 2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인 반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5병 2어의 사건은 제자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사건인 반면,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당시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더불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만찬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작과 비슷하고, 물고기에 대한 축사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잔에 대한 축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식사할 때 가장이 취하는 몸짓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식탁교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쁨의 공동식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아니라, 한편으로 는 제자들의 극심한 무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지역에서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그 지경을 넓혀 갔습니 다. 그리고 그동안 마가가 계속해서 암시해 왔던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첫째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7병 2어를 통

해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만나로서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적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람을 경험할 때, 경외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적은 우리의 무지함에 자극을 주어 믿음의 세계로 열어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놀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놀람과 이적은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7병 2어의 사건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넘어 하나님의 신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온 인류의 참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신앙 핵심파일>

마가복음 8:11-26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20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ना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 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핵심파악능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핵심파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탐구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연구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핵심파일을 참고하면, 그보다 더 깊이 찾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시도할 때, 핵심화일이 있으면, 그 분야를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길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청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핵심화일을 참고하면, 청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핵심화일이 있다면, 보다 쉽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

오늘 말씀은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에서 7병 2어 이적을 행하신 이후,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비난하는 듯한 어투로 유혹하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행하신 능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신적인 권위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하고도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요구한 표적인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한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과 함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구하는 표적은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를 바른신앙으로 이끄는 핵심화일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아시고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벳새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책망과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이에 놓음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 핵심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새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치료는 마땅히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화일을 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에 앞서 유대인의 반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이면서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몰이해와 무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으로 가는 핵심화일입니다.

적용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지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지함으로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벳새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무지한 눈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지함으로 뿌리 내려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벳새다에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8:27-9:1

27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마을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제자들의 답변이었던 선지자라던 답변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항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육, 즉 피와 살로 이루어진 피조물적 한계를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부드럽게 표현해서 항변이지 항변하단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로 읽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거나(마8:26) 사탄을 내쫓을 때 (마17:18) 쓰는 과격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몇 년 동안 따라 다녔는지 아십니까? 3년이에요. 3년. 내 직업과 가족 아내까지 버려두고 당신을 쫓아서 왔는데,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요?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와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입장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항변에 대한 답변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한정하면 사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3년간 주님을 따랐고,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서 나뉘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즉 나의 생각이 아닌 전적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적용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제자의 삶은 과거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삶에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걸음 위에 참된 소망이 솟아나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문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천국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보이는 것 vs 보여지는 것>

마가복음 9:2-13

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2009년 세종서적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을 다룬 책인데, 리처드 와이즈먼이 쓴 「왜 나는 눈앞의 고릴라를 못 보았을까」(Did you spot the gorilla? how to recognise the hidden opportunities)입니다. 2004년,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대니얼 사이먼스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먼저 흰 티와 검은 티를 입은 6명의 청소년을 모아놓고 서로 농구공을 주고 받는 영상을 찍은 뒤 사람들을 초청해 “관찰력 테스트”를 한다고 한 뒤 “이 청소년들이 몇 번씩이나 공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적

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상영이 끝나자 그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릴라를 보신 사람들이 있나요?”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 사이먼스가 다시 영상

을 틀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영상 중에는 고릴라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학생들 한 가운데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 가슴을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재미난 실험으로 2004년 대니얼 사이먼스는 이그노벨상(노벨 상의 패러디상으로 특이한 연구에 대해 시상을 하는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멀쩡히 두 눈을 뜨고서 소년들 사이를 지나갔던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초에 피실험자들이 이 실험을 “관찰력 테스트”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년들이 주고받는 농구공에만 시선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농구공만 봤을 뿐,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얼마나 우리의 인식이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흔히 사용돼왔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못 보거나, 밤에 운전하고 가면서 길 건너는 동물을 못 보는 이유 등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속도, 지나가는 차, 교통표지판 등의 대상에 초점을 갖다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대상이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보는 감각에 비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오르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본문에 쓰이는 “변형되사”의 의미는 외형의 변화와 함께 내적 성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세상에 메시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4절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친 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표적을 이 땅에 보인 자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일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신 18:15)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4:5에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

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와 연관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5절에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세 개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은혜만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잘 보존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주목한 이상, 그 은혜의 한 복판에서 경험한 이상, 신앙의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하기에 기념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는 이 은혜의 순간을 붙잡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지도자들과 다른,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비방하는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기가 종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믿음의 대표 주자들과 머물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좋기에, 너무 은혜가 되기에 베드로는 자기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7절에 나오는 “들으라”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명령이 추가되었다. ‘들으라’를 직역하면 ‘그를 들으라’가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너희는 세상의 말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이 보려고 하는 거짓된 영광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너

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죽음이라는 영광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적용점

우리의 보는 방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겠습니다.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틀을, 신앙의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의 시각은 바뀌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응시하고 주목하며,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을 견비해야 합니다.

기도문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믿음의 위기>

마가복음 9:14-29

14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문제의 상황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병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찌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귀신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본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를 목격했던 서기관들의 악의 찬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많은 기대를 했고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걸맞는 활약상을 보여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기력함과 무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멋있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무기력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함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셨고 그들의 무기력의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후에 말씀하신 기도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수 없다는 말씀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사역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삼 년,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제자로서 삼 년의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안해서 그렇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에 그들은 무기력했고 주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위기

이 믿음의 위기는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던 그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만 가면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의 다수가 그곳에 있었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까지 달려왔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위기가 22절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이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믿었던 제자들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재설정

그러한 상황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23절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 아이의 아버지의 할수 있거든의 믿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재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재설정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흠족할만한 나의 믿음 말고 주님께서 인정하실만한 믿음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더욱 자괴감이 들어 낙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거나 하는 걸까?’ 질문하면서 자포자기하기 하려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재설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만나면, 금방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설정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역주행>

마가복음 9:30-41

30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 예수께서 앞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차로 수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실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사 더이상 희게 할 수 없을만큼 광채를 내시며 변형하신 사건을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난 예고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면서 고난의 종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우리는 먼저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제자들은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했고,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쟁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구원 사역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헛된 논쟁만을 일삼는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은 자리를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앉히시고 겸손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자세는 다름 아닌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봉사자는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의 봉사자였던 집사는 곧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이를 통한 가르침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한 실물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

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어린아이는 생각의 정도가 열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노역이나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낮고 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예수님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세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고 천한 신분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적용점

세상의 가르침은 항상 최고가 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삶이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좁은 그 성공이라는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문은 너무 좁아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낙오자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회는 경쟁이 너무 나 치열한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섬기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그리스도인은 역주행하며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헤엄쳐 올라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주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래야 합니다.

기도문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역주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관문을 통과하는 삶>

마가복음 9장 42-50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없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 목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류 문화학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중 ‘통과의례’(通過儀禮)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방주네프(Van Gennep)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한 사람이 출생하고, 성년이 되고, 결혼하고, 사망에 이르는 즉 한 사람의 일생동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치루는 일종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관문 즉 통과해야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관문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경우에 따라 혹독한 자기 훈련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개의 경고

오늘 말씀은 4가지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것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그리고 “만일 네 눈이 너

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인들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관대하시고, 포용하시고 화 목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대함이나 포용과 화 목은 타인과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 반면,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문자적으로 받고 해석하는 것보다, 범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영생을 성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곳은 매우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4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비유

예수님은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여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이미지는 왕정시대에 인신(人身)을 제물로 받쳤던 힌놈의 골짜기 모습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때 이곳은 몰록 숭배의 현장이었는데, 후에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장에는 장례를 치룰 수 없었던 부정한 시체들이 그대로 썩여 있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불에 태워지기도 했지만, 어떤 시체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썩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옥’에 대한 이미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본문에서는 비참함과 고통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표현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라는 용어는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는 벌레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더 지긋지긋한 형벌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 됨으로써 그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장애인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로써 조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그 강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맨 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지면 그 뜨거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과 의례에서 강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소금)을 기억하면서 서로 화 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용점

내 삶에 있어서 유혹이라는 것은 매우 달콤하게 다가오고, 취하거나 행동을 해도 되는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단호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악된 습성이나 태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라낼 수 있는 힘의 발현은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유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속은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화 목하고 평화 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남용되는 규범>

마가복음 10:1-16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

어렸을 적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지나 가는 사람들을 그 함정에 빠뜨려 곤란하게 하는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궁지에 몰거나,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그를 처형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심에 따라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처형을 지지해 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9장 30절을 참고해 보면, 그 이후부터 가르치시는 대상이 주로 제자들로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것이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하거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2절의 중반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간교한 음모를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6절에 창조의 질서를 언급하시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자행되는 이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의 경우 간음죄가 성립되었지만, 남자에게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쪽이 간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시험을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축복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 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이 자체가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자들마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²¹²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설교 묵상집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만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점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무엇일까?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믿음과 믿음 없음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순물이 많은 상태로 세상을 볼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만 순수하게 믿음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경건의 능력>

마가복음 10:17-31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의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빛좋은 개살구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없는 과일이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 없는 경우를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이 겉모습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

니라, 영적인 내실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3: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구도자가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열심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 다소 냉랭하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 듯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하신’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신앙의 열심 이면에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지 잊는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건을 통해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십계명

주님은 그러면서 19절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십계명중에 5계

명에서 10계명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도자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도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성인이 된 12살부터 율법에서 배운 모든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과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또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1-2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도자의 아킬레스건

하지만, 주님은 21절에 이 구도자의 아킬레스건을 터치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의 생활을 해온 구도자에게 주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주님앞에서 당당했던 이 구도자는 꼬리를 내립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부자로 죽으려는 듯’ 돈을 모읍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순응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유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본문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나눔 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위해 재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소유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적용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면 제거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멀다며, 가까이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서먹한 관계라면,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단순히 계명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주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32-45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동상이몽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뜻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다는 의미로, 같은 처지에 있거나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수난에 대한 예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막바지에 접

어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거룩한)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 받고 죽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주님을 좇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던 중에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분하여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번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들, 즉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심으로, 후에 그들이 그 일을 목격한 후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낙담

하지만, 동상이몽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기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눈치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선수 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우편-첫째 자리, 좌편-둘째 자리)에 앉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3년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잣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은밀하게 로비

한 소식이 다른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한 것은 그들도 같은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섬김 받기보다 우리를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과 봉사 이론은 위대함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경배 받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물”(리트론)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값으로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처럼 섬김의 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높임의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적용점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관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작은 격려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하니라.”

기도문

겸손의 본을 보여 주신 주님, 남보다 뛰어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설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더욱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죽기 까지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34일차 4월 1일 토요일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마가복음 10:46-52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의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Chronos)’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매일 시계가 표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Kairos)’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땅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변화없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듯 하지만, 우리의 자리를 신앙인의 자리로 세우며 살아 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반해 예수님의 참 실재를 보고 구원을 받는 소경 바디매오 이야기는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뢰아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계속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요단강에서 약 5리쯤 떨어진 예리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

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은 절기 때마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산지로 막혀있기 때문에 매우 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가 되면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로 인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곳에 눈이 먼 거지 하나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인들은 순례자들이 많이 지나가는 때에 그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이나 도시 어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마가는 46절에 그 소경 걸인이 바디매오(디매오의 아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삶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공동체에서도 나면서부터 장애인이기에 죄인으로 취급했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 늘 그의 크로노스는 세상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앞에서 그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우시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앞에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거센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때임을 알기에 그는 더욱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 위에서 주님께 구하는 내용이 이리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꾸짖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지만, 바디매오는 굴하지 않고 힘껏 자비와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

서 바디매오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겹옷을 내어 버렸습니다(50절). 예수님께서서는 남들이 뭐라고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굳게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바디매오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바디매오의 고백

주님께서 묻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바디매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3년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의 실존적인 고백은 구원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팬이 아닌, 제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밖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저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세속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문

주님, 무지하고 어두운 나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닫혀진 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35일차 4월 3일 월요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오늘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오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는 정결법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출교 조치 혐의가 있는 이들이 성전 제사장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했던 이들도 일단 그 출교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믿어지면 거기서 제사장들의 재심을 기다리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곳은 온갖 병을 앓는 이들, 앓았던 이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살던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가난한 이들의 집이란 지명이 붙었겠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나환자촌 같은 차별과 격리의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호와와 진노를 입은 자들이 머물던 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부정의 땅, 죽음의 땅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었습니

다. 성전이 아닌 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 또 율법적으로 전혀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종교적 이해를 뒤집고 역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존의 질서를 흔드신 예수님의 행동으로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이자 죽여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여 죽으실 것입니다.

향유든 여인

오늘 그런 상황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행동에 가롯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5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리석고 말도 안되는 낭비의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붓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고급 향유 나드 한 근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바로 정규적 노동자의 일년 치 연봉에 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봉인한 뚜껑을 열어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런데 한 나드인 이 향유의 양은, 적게는 350ml부터 많게는 800ml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요즘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하루 정도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향유가 향수보다 진한 원액인 것을 감안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한 두 방울도 아니고, 그 엄청난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냄새는 이 집만이 아니라 그 주변, 아니 동네 전체에 퍼져 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집에는 향기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말입니다. 그런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듯합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해골이란 이름의 골고다 언덕, 저주 받은 땅에서 그분의 소중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즉, 베다니란 말도 안되는 동네에 그 귀중한 향유가 쏟아져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저주의 땅에서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듯이 이 십자가도 어처구니없는 낭비가 아

납니까? 사람들이 예상이나 기대나 꿈조차 꾸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손에 죽고 피를 흘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말을 듣지 않는 인간 피조물들을 얼마든지 징계하고, 저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피와 물을 쏟아주시다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떨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1:9-11)”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다 던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30

절).” 그리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34절).” 주님은 다 이루셨고, 다 쏟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조소와 조롱 가운데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버리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다 부어버리고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느 하나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 같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들을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낭비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릴 위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낭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것이 더욱 눈에 띕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피를 낭비하셔야만 하는 대상, 바로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배신만 하는 그런 사람들, 조금 있으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던질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전부 다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낭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족하고 엉망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다니와 같은 우리의 망가진 자리, 낙담한 자리,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포로된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부으신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그곳이 절망의 자리로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병환자의 집에 그 절망의 마을에 온통 퍼지는 향유의 향기처럼 그분의 십자가가 선 곳,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곳마다 반드시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 부어주시는 생명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적용점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이들을 위해 그분은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말할지 모릅니다. 저런 존재들을 위해 뭘 그렇게 낭비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못났다고 세상에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다니, 버려지고 저주받은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그분의 소중한 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기도문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이 고난 주간 다시금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36일차 4월 4일 화요일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29-36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 이심이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의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예전에 영화 어벤져스 2편의 촬영이 서울 도심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성산대교까지 4군데의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하나 찍자고 인구 천만이 되는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교통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촬영 구경을 가기도 했지만, 사진 찍는 것도 금지되어서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몇 천 억에 이르는 영화의 광고 효과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에서 쓴 촬영비의 30%를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광고에 목숨을 건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떠들어야 봐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TV에서 우릴 인터뷰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부산을 떨까요?

예루살렘 입성 소동

오늘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헬라 문화권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고 더 알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장면의 앞에는 나귀를 타시고 엄청난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경험하고 들뜬 제자들에게 헬라인들까지 찾아오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찬 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시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치 겻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28절).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예수님의 입으로 밝혀집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예수님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절망의 땅을 만들어 버린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피조물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임금, 곧 사탄과 그와 협조하는 교만한 땅의 임금들(계 17:2),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죽음의 권세들을 깨부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의 임금에게 종 되

고 포로 된 이들을 다시 빼앗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32절)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34절).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던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즉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과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던 것과는 반대로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마 4장 참조).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와와 그녀의 말에 의존하고 선악과를 먹지만,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홀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의 심판을 피해 나무 뒤에 숨지만, 겻세마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바로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담의 모든 허물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무너뜨린 사탄의 권세와 영향도 십자가 앞에서 처참히 붕괴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고 기뻐하시던 그 피조물들의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이시자 인자,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어둡고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35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릴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쓰신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 성취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5,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지금도 엉망이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릴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란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그것이 그냥 녀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냥 나를 기다려주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 그분의 십자가 그냥 늘 습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고생과 죽음을 외면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우릴 향한 첫 사랑과 이 피조세계에 대한 회복의 열정을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에게 감동하십시오. 믿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는 것, 그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적용점

오늘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릴 향한 첫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 그분의 열심과 사랑은 그 아들까지 그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내신 복음이 나에겐 새로운 감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깊은 뜻과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폭과 길이를 아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주님이 옵니다>

요한복음 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앞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반의 시인

오늘 장면은 바로 세족식 이후에 이어지는 식사에서 예수님이 배반할 제자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미 괴로움이 가득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운명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배반이 제자에게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누구일지 서로를 의심합니다. 서로 눈치를 주며 누가 그 배신자인가를 예수님께 물으라고 합니다. 결국 요한이 묻지요. “주여 누구니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 떡을 적셔 줄 때 받는 자가 배반자라고 하시며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실 때도 알아듣기는 커녕,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이이기에 주님이 따로 시키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만큼 유다는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돈까지도 맡길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유다

실제로 유다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당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이란 혁명분

자도 있었고, 무식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현대의 인력컨설팅 회사에 분석 의뢰를 하면 받게 될 회신을 누군가가 가상적으로 쓴 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 귀하의 열두 명의 제자들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귀하가 계획하는 큰일의 간부로서 자격 부족입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관념도 없고 협력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 마디로 무능력자로서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됩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들은 사회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열두명 중 긍정적인 사람은 가롯 유다뿐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도 예민합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컨설팅회사는 유다 한 명 만을 추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유다는 번듯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보면 다른 제자들의 엉뚱한 발언들과 실수들, 오해들은 많이 나오지만, 유다에겐 그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27절).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35절). 그리고 유다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밤에 어둠에 잡힌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30절). 이 말씀을 보면 비단 유다 뿐 아니라 누구나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뜻입니다.

어둠에 사로 잡힌 유다

그렇다면 왜 이 유다는 어둠에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애초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영광을 회복할 분이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들을 수차례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

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수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실 때 그에겐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고 따른 자신의 헌신에 배신을 한 셈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자신들을 버리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유다에겐 자신의 꿈과 기대를 이뤄줄 메시아만이 필요했던 거지요. 자신의 꿈과 기대를 접고 따라야 할 메시아는 그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디로 그는 자신의 꿈을 따르고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가짜 빛을 따라 그것이 어둠인 줄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하나님이기에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가 썩을 까봐 사탕을 빼앗는 부모와 이를 모른 채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끝까지 놓치 않으려는 아이 간의 실랑이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에게 사탕은 선이고, 사탕을 빼앗는 부모의 행동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압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으로 선한 것은 바로 사탕을 자제시키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때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이라고 믿으면 말합니다.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위한 싸움

유명한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여러 수도원을 여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는 금방 쓰러질 듯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물었습니다. “수도사님은 아직도 사탄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웬걸요, 사탄과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요.” 이 말에 깜짝 놀란 카잔차키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도자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리도 어렵습니다.” 유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에겐 제자들을 버리고 죽을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도 낙제이고, 로마를 물리치려는 자신의 애국적인 계획에 찬 물을 끼얹는 예수님도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궁전을 짓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롯 유다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그대로 대표하고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보기에 믿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마치 선악과를 먹는 하와처럼) 따라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란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시는 일이 선한 계획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내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그 고백을 빚어내어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적용점

우리는 유다와 얼마나 닮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그랬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바로 빛을 따라가기 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빛입니다. 결국은 어둠의 낭떠러지로 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수고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예수님 안에서 족적을 남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님, 제가 꼭 쥐고 있는 것들, 제 계획들, 제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사용하사 주님이 그리시는 커다란 그림을 제

인생에 그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사순절 38일차 4월 6일 목요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십니까?>

누가복음 22:7-20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의 찬송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유월절 식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유월절 식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간다면 제자들이 당연히 묵을 곳과 식사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게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은 많은 이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기에 방을 잡기에도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이 말씀에 아무 준비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9절).” 이에 예수님은 손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사는 사내를 따라 그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는 이 말만을 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에 하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직접 하신 일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적인 은혜임이 이 유월절 식사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19, 20절).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드러납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의 유래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맹세하고, 하나님께는 그분께만 소유된 백성이 되기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선 그 언약식의 모습이 이렇게 기술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8절). 출애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의 부르짖음(출 3:9)을 듣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재해석되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도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기대한 것이 이 새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로마가 착취한 유대 땅은 땅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성전은 종교란 이름으로 착취를 일삼고,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장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 잘못된 세상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그가 외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

게 하라”(3절). 바로 이 구절의 앞은 이렇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2). 바로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절망 중에 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애굽과 같은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바로 세레 요한은 이 구절들을 묵상하고 외치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이 다시금 자신들의 세대에 일어나길 기대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레 요한과 같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의 체결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자비심을 가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가?”, “오,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캄캄한 미래, 우리에게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위로로 열어주시는 은혜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출애굽, 새 언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에서 바로 성찬식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이란 파라오의 세상, 세상의 임금과 죽음이 지배하고 굴림하는 세상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출애굽의 이야기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 중에 김OO집사라는 분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에 집에서 말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예배 중간에 있는 성찬식 시간이 왔다. 목사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과 은은하게 들려오는 오르간으로 들려오는 예수님 고난에 관한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년 부활절만 해도 남편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건만 올해는 혼자만 예배에 참석하여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 아내의 눈에 어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순서에 따라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는 시간이 왔다. 그 아내는 조그만 떡을 받아 들고는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서 종

이 한 장을 꺼내어 그 떡을 정성스럽게 찢다. 그리고 잔이 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그만 병을 꺼내어 거기에 담았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아내는 집으로 갔다. 남편은 고통 속에 누워있었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로 다가가 종이에 찢은 떡을 내밀었다. “여보, 이것 드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고통스러웠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먹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병 때문에 교회가지 못하는 남편에게 꼭 먹여 드리고 싶었어요.” 아내의 우는 모습에 남편은 통곡을 한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다.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그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주일 날 교회로 걸어 나오더라. 주님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남편에게 갖다 준 아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먹은 남편,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다시금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해방과 자유와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시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릴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적용점

우리의 예배는 산 자의 예배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회복과 위로의 복음, 새로운 출애굽의 복음이 경험되는 예배입니까? 예배와 성찬에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합시다.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린다고 해도 그것을 담을 심령의 빈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지금 빈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우린 가족입니까?>

요한복음 19:17-30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 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더라

오늘의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기 26절 어머니를 부르는 이 말, 여자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기적,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가나의 기적 장면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2:4).

라고 말씀하셨었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제 기억날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며 한 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귓가에 들립니다. “여자여.”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탄생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2-35). 바로 오늘 장면은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지금 십자가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눅 23:33)이 같이 메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18절). 로 그 흉악한 강도 중의 회개한 이도 역시 십자가에서 그 공동체에 포함됨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2, 43). 주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그 흉악한 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강도들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바닥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이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모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오늘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그분 앞에서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 모든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까지 다 모여 그 초라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강도도 세리도 창기도 노숙자도 모여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우린 다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받

은 작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영국의 한 도시 북판에서 생동하는 사역을 펼쳐 가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세 군데의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매해 첫 주일이 되면 본 교회와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강도, 도적, 폭력범 등 범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성찬에 참여함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해 주는 힘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해 주일 목사님이 보시니까 강도였던 한사람이 영국대 법원 판사와 나란히 성찬대에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바로 그 강도를 감옥에 보내 7년형을 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사람이 되어 이제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과거의 강도였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대법원 판사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옆에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는가 하고. 그러자 목사님은 자신은 알았는데, 판사께서는 모르셨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적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거듭난 강도야말로 은총이 낳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목사님은 강도를 생각했지만, 판사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은혜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판사가 자신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무슨 뜻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대답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의 기록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말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기도 드리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옥스포드(Oxford) 대학을 졸업했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도 저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오늘 주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심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제 새로운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

이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서 마주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가족으로 앉은 우리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약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기대를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세상의 바닥까지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드리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근사하고 멋진 것을 따라사는 삶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릴 향한 바램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저도 저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용점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교회에서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보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금 화해와 하나됨의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껴여져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린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는 싸움에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진리에 합한 하나되기 위한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

<부활이 사실입니까?>

누가복음 24:1-12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죽음, 이별과 고통

자동차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앞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나 가족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소?”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아내였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앗, 저 사람 움직인다!’” 죽음을 좋아하고 환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죽음은 많은 것들과의 이별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오늘 본문도 보면 죽음이란 그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현실의 무게에 압도당한 그들은 부활이란 눈 앞에 벌어진 현실을 믿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갑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지고 거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합니다(11절). 그나마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빈 무덤에서 세마포만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길 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이제 죽음을 피해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길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눅 24:21-24). 이 제자들에게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기이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음의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그들에게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 둘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31절). 바로 그것이 그들의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열 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34, 35절).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이야길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16:13).

부활의 증언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차례 증인들이 찾아가 이야기해도 믿기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삼 일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전에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3번이나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안 믿어져도 죽음은 너무 확실히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그렇게 압도당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나 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매일 뉴스에 전세계 사망자의 숫자가 보도됩니다. 2021년 말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600만 명에 이릅니다. 사망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였고, 죽음의 소식은 너무나 광범히 퍼지기에 그저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죽음이란 현실보다 부활과 영생이 더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빈 무덤 앞에 제자들처럼 부활은 막연한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부활제로의 초청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계속 미룰 수 없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오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기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라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38세 의사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 왔고 그 다음은 몇 십 명 그리고 몇 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려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전 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고,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에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의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

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격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화를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죽음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믿어진다면 우린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빈 무덤을 보는 이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점

오늘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매년 오는 반복적 습관적 행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약속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던 절망을 선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떤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역전의 이야길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압도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상의 스토리 묵상

1.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2.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적어 보세요.
3.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4. 오늘 내용에 대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5.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문 적기 & 실천 사항 적기